

교회 목표

신령한 예배
친구인 양 성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이웃 사랑

주간충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마태복음 4:17

이루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마태복음 16:24

대한연세대학교 출판부 창간호 충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02-552-8200 © 2006 충현교회

THE WEEKLY CHOONGHYUN

발행인: 김성환 편집인: 노광현 편집: 양재웅

믿음으로 나아가는 교회, 은총을 입은 교회

다음 주일(17일) 찬양 예배 시, 은퇴자 시장 및 특별 제직회



다음 주일 찬양 예배 시에는 제직에서 은퇴하시는 분들을 위한 감사의 시간이 있습니다. 복음을 위한 삶이었기에 은퇴하시는 분들의 발자취에는 예수님의 흔적(갈 6:17)이 곳곳에 배어 있었습니다. 더 이상 교회의 제직은 아니지만 시므온(눅 2:25-29)과 안나(눅 2:36-38)처럼 남은 생애를 다시 오실 예수님을 대망하며 십자가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리라 기대합니다. 또한 교회의 제직에 관한 2006년 결산과 2007년 예산을 위한 특별 제직회가 찬양 예배 후에 있습니다. 한 해를 결산하고 복음을 위해 사용될 예산이 지난 수요일(6일), 정기당회를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제직들은 특별 제직회를 통해서 믿음으로 나아갔던 그 발자취와 은총의 증거들을 직접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2007년에도 예년과 같이 불필요한 부분에 재정이 지출되는 것을 최소화하고, 오직 복음을 전하는 데 모든 예산을 집중하였습니다. 2007년, 믿음으로 예수님과 한 길을 한 길을 나아갈 때 우리는 소망으로 통성할 것입니다. 이 소망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벧전 1:21).

*본지 4면에 2006년 은퇴자 명단이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메시지⑩ (금요일회)

희생양

창세기 22장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된다(창 22:1).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를 원하신다. 문제는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알처럼 셀 수 없도록 많은 자손을 축복하신다"(창 15:4,5)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과 관계된다. 아브라함은 한 아들을 얻기까지 25년을 기다렸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독자 이삭을 다시 바치라고 명령하고 계신다(창 22:2). 아브라함은 즉시로 아들 이삭과 함께 산을 향하여 떠났다(창 22:3). 말 없이 한 발자국씩 내어 던지는 것을 향하여 이삭이 입을 열었다(창 22:7). 놀랄게도 아브라함의 대답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창 22:8)는 예언적인 말씀이었다. 결국 이삭이 죽어야 하는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수레에 걸려 있는 번제할 한 수양을 보내셨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우리의 죄를 짊어지는 희생이 되게 하시고 이 땅에 보내셨다(갈 4:4,5).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나기 전, 고센 땅을 적시고 흘러내렸던 양의 피를 보자. 그 피를 문설주마다 급하게 바르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순종하여 실천하는 믿음을 상상해 보자. 손에 지팡이를 들고 밤에 신을 신고 겹옷을 걸친 대로 서서 급하게 먹고 있는 당시 자신의 모습을 상상해 보자(출 12:3,7,11,12). 문설주에 피를 뿌린 목적은 보호함을 위한 위함이었다(출 12:13). 즉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를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보호하시며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뜻이었다(롬 5:8-10). 이제 장장만 60만 명인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을 떠났다. 430년 동안 살아온 그 땅, 주인 노릇을 하던 애굽 사람들이 은금 재물과 의복을 주며 오히려 빨리 떠나 주기를 간구하는 모습을 그려보자(출 12:33,35,36). 텅 빈 집들, 고요한 거리, 외적자,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을 갈라놓은 문설주에 발라져 있는 양의 피를 그려 보자.

이들은 이제 자유인이다. 이제는 누구를 따라야 하며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확실한 것이 없다. 하나님께서는 방황하는 민족을 불확실한 상태로 오래 버려 두지 아니하셨다. 이들에게 지켜야 할 10계명이라는 출세를 말씀하여 주셨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보호하고 또 바른 삶을 살게 하기 위해 이 계명을 주셨지만 이들은 계명을 받은 후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뒤로 물러났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한 가지를 더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하셨다(출 20:23). 즉,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기에 다른 신들을 만들지 말라 하시며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셨다(출 20:24). 또한 하나님께서 여러 종류의 제사를 설명하

시며 참으로 희생 제물은 진지하게 다루어야 할 문제임을 알게 하신다. 올바른 동물이 있어야 함과 또 동물을 취하는 방법과 엄격한 규칙과 함께 제사를 드리는 사람과 장소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셨다(레 17:8,9).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해방되어 가나안에 정착할 때, 그 문화 속에 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기 위하여 저들을 광야 길에서 준비시키셨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 같이 그의 백성인 백성도 거룩하기를 원하신다(레 18:3,4). 희생과 절기와 안식일들을 통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신 것이다. 창세기 3장에서 이미 죄를 덮어 주기 위한 피가 필요하였음을 보여 주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계속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게 한 것은 동물의 피였다. 왜냐하면 인간의 범죄는 이미 하나님께서 정제하셨던 것처럼 그 결과가 죽음이기 때문이고 또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이다(레 17:11). 구약은 우리들에게 죄를 속하기 위한 피 흘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반복하여 상기시켜 주고 있다. 이는 하나님께서 완전한 희생을 준비하고 계셨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바로 최종적으로 드러지는 희생 양이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보혈은 참으로 보배로운 피로써 그 안에서 우리는 의의 옷을 입을 수가 있다(요일 1:7, 2:1,2).

예루살렘 성전이 완성되고 이제 이스라엘의 성전 헌당식에 대제사장과 백성들, 솔로몬 왕이 경배를 드린다. 연약한 아이는 광야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만나와 모세가 받았던 십계명이 들어 있다(왕상 8:6,9). 아담과 하와는 첫 번째 희생인 동물의 가죽으로 옷을 입었고 모세는 애굽의 노예 생활로부터 자유함을 받은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불로 들에 쓰여진 십계명을 받았다. 이후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영원한 처소를 위하여 480년을 기다렸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연약하게 자들이 하나님께 경배드릴 수 있는 단 하나의 상징이었다. 성전을 하나님께 바칠 때에 드러졌던 많은 행사 중에 셀 수 없이 많은 동물을 잡아 희생을 드린 일이 있다(왕상 8:5). 마지막으로 연약하게 옮긴 후 제사장들이 거룩한 성소를 떠날 때에 구름 곧 하나님의 영광이 성소를 채웠다(왕상 8:10,11). 이것이 곧 신약에서 나타날 이의 예표였던 것이다. 예수께서 완전한 희생으로 오셨을 때에 우리들을 향하여 일을 그치고 쉬라고 하신다(마 11:28-30). 그의 임재를 경배하라고 하셨다. 그리스도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를 부르신데 여러분의 마음은 그 부르심에 놀란 적이 있는가? 그 부르심에 감격하여 그 안에 자신을 내어던진 수밖에 없는 체험이 있는가? 아직도 그리스도 앞에 내 자신이 스스로 서기를 원하는가!

DO NOT BE AFRAID

*The angel said to her, "Do not be afraid, Mary;
for you have found favor with God." (Luke 1:30)*

As a Christian, when you face difficult circumstances or go through troubled times, someone always tells you not to worry. It may be family, friends, or the Holy Spirit Himself. The problem comes when you do not heed these words of wisdom because of unbelief, which by the way is too often. When you do not listen, and continue to fret and fuss, your faith weakens. Your negative actions cause yourself and others to be very uncomfortable and unhappy. In today's Bible verse, an angel of the Lord God came to the Virgin Mary, a believer, and told her not to be afraid. Did you know that prior to this angel showing up that God's word was silent for over four hundred (400) years? Not forty years (40) or even four (4) months, which is a long time, but four hundred years passed since the word of the Lord came to His people through the prophet Malachi! As such, when suddenly an angel shows up and tells not just Mary, but also Zacharias, Joseph, and the shepherds, "Do not be afraid," that has some deep meaning. Four centuries of silence, and then the first words to all these people are "Do not be afraid." I think this is a key message for believers. It is something we as Christians should definitely not take lightly.

As sinners, our basic attitude is to worry and not take seriously the word of God. You hear the words, "Don't Worry," but you often forget to practice them. You get into the bad habit of stressing out. As Christians, our foundational character is to get involved with God by hearing and obeying His commands. When God's glory was about to come to this earth, His first message to believers, after four hundred years of total silence, was not to be afraid. What does that really mean to you? Let us look at what it meant to Mary, so that we can better appreciate what it means to us.

First, when the angel told Mary, "Do not be afraid," God was saying do not be afraid of the unexpected. Before this angel showed up, Mary was a young woman in love. She was engaged to marry Joseph. She was a believer filled with happy dreams and hopes, but now something unexpected was going to happen abruptly. She was going to become pregnant without being with a man. She asked the angel, "How can this be, since I am a virgin?" (v. 34) The angel told her, "The Holy Spirit will come upon you, and the power of the Most High will overshadow you; and for that reason the holy Child shall be called the Son of God" (v. 35). He even told her that her relative, Elizabeth, would conceive a child in her old age, and that all this was doable because nothing is impossible with God (vv. 36&37). Jewish law demanded that unwed mothers could be stoned. Who would believe her story? Her community would surely turn against her. This was a huge weight to carry. Would you be worried? Believers sometimes get scared when unexpected situations come. Mary told the angel, "Behold, the

bondslave of the Lord; may it be done to me according to your word" (v. 38). Her response is why she received God's grace. She received the miracle from heaven and delivered Him into this world. She was the catalyst for the incarnation! Her mission was paramount, and her performance was spectacular. Can you handle the unexpected?

Second, when the angel told Mary, "Do not be afraid," God was actually telling her not to be afraid of losing her life. The life she dreamed of having with Joseph was not to be. Her special pregnancy was going to change everything. When Joseph found out she was pregnant, he wanted to save her by sending her away secretly. As he was considering this idea, an angel of the Lord appeared to him in a dream, saying, "Joseph, son of David, do not be afraid to take Mary as your wife; for the Child who has been conceived in her is of the Holy Spirit" (Mt. 1:20). Sometimes big things happen to Christians. You may lose a loved one. You may lose your job or house. You may even lose your own life. God told Mary and Joseph not to be afraid because their gain was much greater than their loss. Do you believe it?

Finally, the angel's message of do not be afraid, meant that Mary should not be scared of meeting with God. In the Old Testament, whenever you faced God, you died. Now, because of the incarnation, God can be in you and you in Him. Before Christ, sinners died, but with Christ came the good news of salvation. Sinners could repent and change into new creatures. Their sins could be forgiven. When the angel of the Lord suddenly stood before the shepherds and the glory of the Lord shone around them; "they were terribly frightened" (Lk. 2:9). But the angel said to them, "Do not be afraid; for behold, I bring you good news of great joy which will be for all the people; for today in the city of David there has been born for you a Savior, who is Christ the Lord" (Lk. 2:10&11). As soon as the angel told the shepherds, suddenly there appeared with the angel a multitude of the heavenly host praising God and saying, "Glory to God in the highest, and on earth peace among men with whom He is pleased" (Lk. 2:14). Peace, not fear, needs to be in the hearts of believers. Many Christians are afraid of meeting with God because of sin. Without doubt, standing before the Lord God is fearful, but there is good news. Jesus is our Savior. He will protect us, so we do not need to be afraid. God wants to take your fears away. Will you let Him?

My dear friend, please trust God and do not be afraid of anything. He has taken care of the unexpected. He has taken care of your life. He has taken care of your relationship with Him. The Son of God, Jesus Christ, has taken care of everything for you. All you need to do is accept it and believe it and start living it. Amen. ▮

다음을 주일 설교

무서워 말라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누가복음 1:30)



김성관 목사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려운 환경에 처하거나 힘든 시간들을 헤쳐 나가기 할 때면 항상 누군가 우리에게 격정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 누군가는 가족이나 친구일 수도 있고 때때로 성령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우리가 가진 연약한 믿음으로 우리가 지혜의 말씀에 주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듣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며 초조해 하면 여러분의 믿음은 약해지고 맙니다. 여러분의 부정적인 행동들이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편지 못하게 하고 불행하게 만듭니다. 오늘의 성경 본문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동정녀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무서워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천사가 나타나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400년 이상이나 침묵하셨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백성들에게 선포된 후, 네 달도 아니고 40년도 아닌, 자그마치 400년이라는 긴 시간간 휴름했습니다! 그에게는 갑작스럽게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무서워 말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비단 마리아뿐만 아니라 사가랴, 요셉 그리고 목자들에게도 동일하게 하신 말씀입니다. 여기에 아주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400년간의 침묵 후에 모든 백성들에게 들려진 첫 번째 말씀이 “무서워 말라”였습니다. 저는 이것이야말로 선지자들이 마음에 새겨야 할 가장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그 무엇이 있습니다.

무서워 말라

죄인인 우리들의 기본적인 태도는 모든 일에 대한 걱정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격정하지 말라”는 말을 듣습니다. 그러나 이 말을 쉽게 잊습니다. 결국 이 걱정은 스트레스가 되어 다른 사람들을 신성질적으로 대하거나 스스로 우울증에 빠져버립니다. 그리스도인의 기본적인 특성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에 있습니다. 400년 동안의 완전한 침묵 후에 하나님의 영광이 마침내 이 땅에 임하려고 하는 그 때에 신자들에게 내려진 주님의 첫 번째 메시지는 “무서워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진정으로 여러분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먼저 마리아에게 있어서 이 말씀은 어떤 의미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을 통해 참으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더 깊이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을 무서워 말라

먼저, 천사가 마리아에게 “무서워 말라”고 말했다 때, 이것은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에 대해 무서워 말라는 뜻입니다. 천사가 나타나기 전까지 마리아는 사랑에 빠진 젊은 여인에 불과했습니다. 그녀는 요셉과 정혼한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행복한 꿈과 희망에 부풀어 있던 마리아에게 지금 예상치 못한 어떤 일이 갑자기 일어나려 하고 있습니다. 낯자를 알지 못하는 그녀가 잉태하게 되리라는 것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천사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34절) 천사가 말했습니다.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리라” (35절). 천사는 마리아의 친척 엘리사벳 역시 늙어서 아이를 잉태했으니 하나님께는 능지 못한 일이 없다고 말했습니다(36,37절). 유대인의 율법에는 미혼모는 돌에 맞을 수도 있습니다(신 22:22~30). 그러니 누가 마리아의 이야기를 믿어 주겠습니까? 유대 사회는 그녀에게 등을 돌릴 것이 분명했습니다. 이것은 그녀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큰 짐이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근심하지 않았을까요? 때때로 예기치 않은 상황이 벌어지면 신자들은 두려움에 휩싸이고 맙니다. 마리아는 천사에게 말했습니다.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38절). 그녀의 대답 속에 왜 그녀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게 되었는지 그 이유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녀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기적을 받아들였고 그분이 이 땅

에 올 수 있는 통로가 되어 주었습니다. 마리아는 성육신을 위해 택한 받은 도구였던 것입니다! 그녀에게 주어진 임무는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이론 업적 또한 대단했습니다. 여러분은 예기치 못한 일에 잘 대처할 수 있습니까?

죽음을 무서워 말라

두 번째, 천사가 마리아에게 “무서워 말라”고 말했다 때, 이것은 정말로 죽음을 무서워 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녀가 요셉과 함께 꿈꾸었던 평온한 삶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상치 못한 그녀의 잉태는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요셉은 마리아의 잉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조용히 그녀와 파혼하여 그녀의 목숨을 구하려고 했습니다. 이런 일을 생각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의 천사가 꿈에 나타나 그에게 말했습니다. “다윗의 성의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마 1:20). 때때로 큰일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어납니다. 어쩌면 사랑하는 사람을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직장이나 집을 잃게 될지도 모릅니다. 심지어 여러분 자신의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 때 무서워 말라는 응시를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마리아와 요셉에게 무서워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궁극적으로 그들이 잃는 것보다 얻는 것이 훨씬 더 크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믿습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을 무서워 말라

마지막으로, 천사가 마리아에게 “무서워 말라”고 말했다 때, 이것은 마리아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을 대면한 자는 모두 죽었습니다. 지금은 성육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는 죄인들이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마침내 구원의 복된 소식이 임했습니다. 회개함으로써 죄인들이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는 길이 열렸습니다. 우리가 죄의 용서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주의 사자가 갑자기 목자들 앞에 나타나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쳤을 때 그들은 “크게 무서워” 하였습니다(2:9). 그러나 주의 사자가 말했습니다.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눅 2:10,11). 천사가 말을 마치자마자 갑자기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나타나더니 하나님을 찬송하며 말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눅 2:14). 신자들의 가슴 속에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평강이 있어야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죄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분명히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두려움과 떨리는 일입니다. 그러나 복된 소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두려움을 찾아버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도록 자신을 온전히 맡기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주님만을 믿고 무슨 일을 당하더라도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닥친 갑작스런 일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돌보아 주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생명을 책임지 주십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과 의밀한 교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여러분은 모든 것을 돌보아 주십니다. 예수님은 영원의 문제까지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할 일은 매우 단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고, 믿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의 무슨 일을 만나든지 무서워 말고 오직 주님을 온전히 믿고, 주님만이 우리 삶의 대답이십니다. 아멘. ■

수요1부 예배 메시지

그 이름 예수 (마 1:21)

그 이름 예수! 이분은 은총을 입은 우리의 영원한 찬송의 제목이다. 한 때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데 앞장섰던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라.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 노릇 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 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롬 5:21). 바울은 자신 안에서 왕 노릇하던 죄를 발견하였다. 또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도 깨달았다. 그래서 그는 지금까지 가장 소중히 여기던 자신의 의, 율법, 전통을 모두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의와 은혜를 고백하며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은총의 자녀가 되었다. 도무지 부사되지 않을 것 같았던 바울의 굳은 마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깨지고 부서진 것이다. 그리고 그 깨어진 자리에 오직 '그 이름 예수'만이 그의 삶을 주장하였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삶을 주장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의 삶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가장 소중한 이름 즉, 우리의 지식, 노력, 경험을 가지고 사는 도저히 쓸 수 없는 죄를 해결할 '그 이름 예수'만을 의지하고 있는가? 자신과 정혼한 처녀 마리아의 임신 소식을 근심하던 요셉에게 천사가 나타났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마 1:20). 그리고 더욱 놀랄 만한 소식을 전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마 1:21).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 그 분만이 영원한 찬송의 제목이시다!

이름의 근원 진심으로 죄를 회개하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시다. '예수'의 의미는 구약의 '여호수아'의 의미와 동일하다.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는 가나안 근처에 왔을 때 각 지파에서 한 명씩 선발하여 정탐꾼을 보냈다. 그 중에 에브라임 지파의 호세아가 있었는데, 모세는 그의 이름을 여호수아라고 칭하였다(민 13:8,16).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의미의 '여호수아'는 곧 '예수'이다.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마 1:21).

여호수아는 그의 백성 중에 태어나 지도자가 되었다 하나님은 출애굽의 지도자로 모세를 세우셨다. 그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였다. 그 도중에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율법을 받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였다. 대신에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어 요단강과 여러고성의 기적들을 경험하며 가나안에 들어갔다. 율법은 모세에게 임했지만 은혜는 여호수아에게 주어졌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요 1:17).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와고성이 무너졌듯이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죄의 벽은 무너졌다. "그 이름의 영광이니라 돌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렘 2:14). 이처럼 우리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참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다.

그리스도에게 예수의 이름을 주시었다 사가라는 성령 충만하여 예수님에 관해 예언하였다.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취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눅 1:77,79). 그리스도는 우리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실 예수이시다. 따라서 생명의 빛을 주시는 분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구원자는 오직 한 분 예수이시다. 다른 이름은 없다. "다른 이름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행 4:12).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유일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원한 찬송이어야 한다.

미래에 예수의 이름의 중요성은? 오직 예수만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신다. 그러므로 현재 우리의 삶 그리고 미래의 삶에 있어 예수의 이름이 가장 중요하다. "우리가 예수의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

는 자들도 하나니와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살전 4:14).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예수보다는 세상이 주는 가치에 더 집중하고 있지 않은가? 반석 위에 집(마 7:24)을 짓기가 어렵다고 포기하며 쉬운 모래(마 7:26)를 선택하는 어리석은 사람은 아닌가? 아무리 힘들고 견디기 어려울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어야 한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빌 2:10). 지금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가 있을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진심으로 회개해야 한다. 왜 그런가? 이제 곧 심판이 있기 때문이다(계 1:1).

현재 우리는 성탄의 시즌을 보내고 있다. 성탄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예수님께서 나신 날이기 때문이다. 성탄의 선물, 파티, 화려함에 미혹당해서는 안 된다. 오직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한 분으로 인해서 입술을 열어 찬송해야 한다. "나 예수는 교회를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 별이라 하시더라"(계 22:16). 영원한 찬송의 제목이신 예수의 이름에는 '구원'이 담겨 있다. 이것은 구약의 '여호수아'를 통해서 보여주셨다. 우리는 그리스도께 부여된 예수의 이름 앞에 모두 무릎을 꿇고 찬송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표징인 십자가 앞에 자기를 부인하고 완전히 항복하자. 모든 교만, 자존심을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자. 영원토록 가장 소중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진실로 고백하자. 십자가 앞에서 진심으로 회개하고 당신을 따르는 백성을 구원하실 그리스도 예수께 모든 영광을 돌리드리자! "그 이름 예수! 그분의 십자가 앞에 나의 모든 자아가 부서지게 하소서. 무의식 중이라도 예수의 이름을 부르게 하소서.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삶의 대답이시다. 자신의 노력, 경험, 지식으로 무언가 하려고 하지 말고, 오직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라!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나시기 전에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창 101장). 아멘.

2006년 은퇴 시상자

장 로 김의철 (2189) (1명)

인수집사	임정우(1313)	김용석(79-633)	박문태(5284)	박창서(3599)
	이지호(81-289)	정규호(87-716)		대수준 (6명)

권 사	권영예(81-846)	김경순(1346)	김옥순(82-387)	김재순(84-695)
	김정자(88-923)	김종열(3693)	김희옥(1172)	박명엽(3638)
	박인예(1256)	만병화(2368)	박순애(88-858)	신영순(717)
	신자식(89-1067)	한용녀(80-558)	양숙자(2427)	염미숙(79-35)
	유기림(87-818)	윤수림(880)	이경자(4496)	이병숙(596)
	이순남(79-87)	이윤영(4886)	이은단(5366)	이창자(2676)
	이혜숙(129)	전정자(2635)	정순애(183)	정정자(87-558)
	정주환(1969)	정태옥(1908)	조복덕(461)	조태만(2828)
	저순애(85-510)	최태희(1809)		가다순 (34명)

은퇴 시상 12월 17일(다음 주일) 찬양 예배 시 본당에서

찬양예배 30분 전에 예배연습이 있으므로
본당 앞 지정 좌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혈의 찬양으로

가득한 교회



이종석 (장로, 찬양위원장)

주님을 향한 찬송을 드리는 것은 대속의 은총을 입은 모든 성도의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특히 신령한 예배를 위한 찬양대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귀한 찬양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세워진 찬양대와 오케스트라 그리고 연주대의 대원들은 더욱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영광을 위한 찬양과 연주가 아니라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기 때문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기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벧전 1:3).

보혈로 정함을 입은 찬양의 일꾼

우리 교회에는 가브리엘 찬양대를 비롯해서 7개 찬양대, 5개의 오케스트라, 2개의 연주대가 있으며, 모든 대원은 약 1,500여 명에 달합니다. 이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함을 입은 찬양의 일꾼들이 되기 위해서 찬양을 준비하기에 앞서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찬양을 하다 보면 자칫 자신의 소리와 연주 실력이 빠져 주님보다는 자신이 받을 영광에 집착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런 모습들을 종종 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들은 매순간마다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위해서 대속의 피를 흘리신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일을 가장 우선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갈 2:20).

보혈로 가득한 찬양대원 양성부 훈련

신령한 예배를 위한 찬양대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지만 아무나 할 수는 없습니다. 진실로 보혈의 은총을 감사하며 기뻐하는 사람만이 자격이 있습니다. 이를 위한 훈련 과정인 찬양대원 양성부는 매년 2회(3월과 9월에 개강)에 걸쳐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훈련 과정은 단순히 음악적인 훈련이 아닌, 영적으로 준비된 찬양대원으로 훈련시키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2006년 하반기 찬양대원 양성 과정에는 123명의 훈련생 가운데 101명이 수료하였으며, 앞으로 이들은 각각의 영성과 은사에 따라 찬양의 일꾼으로 쓰임 받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빌 1:11).

보혈로 하나되어 드리는 연합 찬양

지금 우리 교회 연합 찬양대는 12월 22일 금요일집회 시에 찬양드릴 헌맹의 "메시야"를 연습하는 데에 마음을 모으고 있습니다. 각 찬양대와 오케스트라의 대원들이 주일과 주중의 바쁜 시간을 쪼개어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바록 육신은 힘들고 피곤하지만 연합 찬양대원들의 심령은 그리스도를 향한 기쁨으로 충만해 있습니다. 아마도 이 시간을 통해서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죽음, 부활을 되새기며 십자가 은총의 참 뜻을 마음에 깊이

각인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같은 것이 있어 가로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계 19:1).

보혈의 능력으로 변화될 2007년

2007년에도 모든 찬양대와 오케스트라 및 연주대의 시선은 하나로 모아질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찬양대원이기 전에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자녀이기에 주님을 향한 이 마음은 절대로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매순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며 예수님을 따르는데 전심하겠습니다. 또한 연습 시간에 늦거나 결석하지 않고 찬양 연습에 더욱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또한 찬양대원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매년 실시되는 찬양대원 양성부 훈련을 강화하겠습니다. 이 훈련 과정을 이수한 자만을 신입 대원으로 받을 계획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모든 찬양의 일꾼들은 어린 양을 향한 보혈의 기쁨과 찬양으로 더욱 충만할 것입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서 땅 위에서 땅 아래와 바다 위에서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이다"(계 5:13).

보혈의 길을 걷는 찬양의 일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임하실 때 모든 백성들이 호산나 찬양을 불렀습니다(눅 19:37,38). 그 때 찬양의 인도자는 여리고에서 고침을 받은 거지 소경이었습니다(눅 18:35~43). 이 같은 말씀을 생각해 볼 때 찬양은 오직 주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들이 드릴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따라서 찬양위원회의 모든 일꾼들은 더욱 십자가만을 붙들겠습니다. 매순간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으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며 따르겠습니다. 이처럼 오직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십자가의 길을 가며 전심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2007년에도 주님을 향해 하나된 믿음으로 찬양의 일꾼들과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어린 양의 은총을 찬송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시 146:1,2).

*찬양대 및 오케스트라·연주대

구 분		시 간	찬양대·오케스트라
주일예배	I	오전 7:00	가브리엘
	II	오전 9:00	임마누엘
	III	오전 11:00	할렐루야
	IV	오후 1:00	아멘
	V	오후 3:00	예분·별열·핸드벨
수요예배	I	오전 11:00	호산나
	II	저녁 7:00	실로암

*주일 찬양 예배 시 만도린 연주대

“예수님은 마음 속의 지킴이”

제가 교통 사고를 당한 지도 벌써 한 달이 되어갑니다. 학교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던 길에 동네 사거리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과속으로 달려오는 차에 치였습니다. 저는 타고 있던 자전거와 함께 3미터쯤 날아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공중으로 솟아오르는 그 순간에 ‘내가 사고를 당했구나!’ 하는 생각과 함께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고, 마음 속으로 나도 모르게 “예수님 제발...” 하고 외쳤습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축복지도 모른다 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자전거와 함께 날아가서 떨어진 제 몸은 금인 상처 하나 없이 믿을 수가 없을 정도로 멀쩡했습니다. 몸 구석구석이 조금씩 아픈 것지만 너무 놀란 저는 얼른 자전거를 세우며 일어났습니다. 저와는 반대로 자전거는 심하게 망가져서 바퀴조차 구르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친 데가 없는 듯해서 집으로 가려 했지만 차를 운전하신 아버지께서 저를 병원으로 데려가셨습니다. 결국 병원에 입원하여 며칠 동안 정밀검사를 받기까지 하였지만 지금은 아무 이상 없이 열심히 학교 생활을 하면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고 당시에는 당황해서 아무 생각이 없었지만 며칠이 지난 후에 가만히 생

각해 보니 제가 당한 사고가 참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몸보다 더 단단할 것 같은 쇠로 만든 자전거는 바퀴도 구르지 않을 만큼 망가졌는데, 왜 내 몸은 이렇게 멀쩡할까?’ 저는 아주 운이 좋았던 거라고 생각했지만 할머니께서는 제 마음 속에 계셨던 예수님의 손길이 저를 지켜주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나니 정말 저를 아끼고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보호가 있었다면 저는 지금 가족과 함께 있지 못했을 거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 동안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대에 서는 일들이 그냥 숨을 쉬고 밥을 먹고 잠을 자는 것처럼 그저 일상적인 일로만 여겼을 뿐 그 일들을 크게 감사하거나 소중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큰 사고를 겪고 무사한 지금은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 곁에 함께 계신다는 그 평범한 진리를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저에게는 작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매사에 순간순간 기도하고 감사드립니다. 저를 위한 어머니의 기도 또한 제 마음 속에 자리하고 계신 예수님께서 모습을 보여주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믿습니다. 제가 기도를 하고 찬송을 하기 전부터 예수님은 제 마음 속에 계셨던 거라고, 친구들에게도 전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를 “마음 속의 지킴이”로 자리 매김하고 계신다는 것을.

최준성(중등 3부)

오! 거룩한 밤, 구세주가 나신 밤

“오 거룩한 밤 구세주가 나신 밤 오 거룩한 밤 오 거룩 거룩한 밤” 이 찬송을 부를 때마다 나는 말로 표현 못할 큰 기쁨을 누리곤 한다. 특히 온 성도가 몇 개월 전부터 크리스마스를 소망하며 부르고 특별히 연습했던 찬양을 함께 부를 성탄절을 생각하면 더욱 마음이 설렌다. 매년 돌아오는 크리스마스이지만, 올해는 구주 예수님의 탄생을 더욱 큰 기쁨으로 맞을 수 있을 것 같다. 한 해를 돌아볼 때 무한하신 주님의 사랑에 더욱 마음을 다하여 주를 찬양하게 된다.

사랑의 주님은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일년 동안 구역적으로 세워 주시고, 여러 모양으로 봉사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셨다. 정말로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나는 세상이 주는 화려한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더욱 예수님께 집중하는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원한다. ‘왜 이 험한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는지?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지?’를 묵상하면 할수록 예수님을 통해서 확증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느껴진다.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는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위해서 무엇을 쫓게 된다.

김선진(중사, 5교구)

기쁘다 구주 오셨네!

오늘 나는 금요집회에 참여하면서 찬송과 말씀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고 있다. 그 중 특별히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찬송은 “기쁘다 구주 오셨네”이다. 남들이 들으면 너무 흔히 들어서 유자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내게는 매우 특별한 의미가 있다. ‘아기 예수가 나의 죄를 사하여 주어달라!’ 이 얼마나 기쁜 소식이야 복된 소식인가? 머리털보다도 많은 내 죄가 예수님 탄생과 십자가 은혜로 사하여졌고 구원을 받아서 이렇게 주님을 믿고 예쁜 찬양대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었으니 말이다. 따라서 예수님의 태어남이 나에게 정말로 큰 의미가 있다. 내가 여태껏 주를 멀리하지 않고 있는 것도 어쩌면 다 주의 은혜가 아닐까 생각한다. 그 주의 은혜가 내에게는 항상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희망이 되니 정말 기쁘다.

이 찬송을 부를 때마다 크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게 된다. 좌악이 가득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크신 사랑, 나에게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닥칠 때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 저절로 위안이 된다. 예수님께서 날 버리지 않으시고 늘 동행하여 주실 것이니 말이다. 성탄절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찬송을 부르면서 구유 안에 누워 계시는 아기 예수를 되새겨 보게 된다. 이번 성탄절은 그 동안 지난해 크리스마스보다 더 의미 있는 크리스마스가 될 거라 생각하고 나는 주의 그 빛난 영광을 내 눈으로 볼 수 있게, 내 눈을 밝혀 달라고 기도한다. 하루하루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길 원하고, 정말 나의 그 모든 것을 주께사예비하여 주실 것이라 믿고 하루하루 온전한 주님의 형상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번 기회를 통해 다시 한 번 내 신앙 생활을 돌아볼 수 있어서 기쁘고, 내 신앙이 예수님만을 바라보길 기도한다.

윤수정(고등부)

말 구유의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매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사 9:6). 해마다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거리에는 귀에 익숙한 캐롤이 들려오고, 화려한 트리는 지나가는 이들의 시선을 집중시킨다. 그들이 온통 사랑하는 사람들에겐 선물 이야기로 정신이 없을 때, 언젠가부터 나의 마음과 시선은 2000년 전 베들레헴의 허름한 마굿간, 그 말 구유에 갇힌 아기 예수께로 향해 있다. 어둠 속에서 길을 잃고 방황할 수밖에 없던 나의 삶에 참 사랑의 빛을 비취 주시기 위해, 십자가의 그 구속의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 한없이 더럽고 지저분한 말 구유에 나신 예수님, 만왕의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한없이 낮아지시고 순종하신 그 아기 예수님을 생각만 해도 가슴이 떨린다.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나 자신에게 묻고 싶다. 매순간 십자가의 주님, 말 구유의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매 주일 십자가 복음을 듣고 회개의 눈물을 흘리면서도 돌아서면 세상의 영광에 마음을 빼앗겨 버리지는 않는가? 내 뜻대로 행하는 삶이 아니라 온전히 나 자신이 부인되고 내 안에 온통 주님의 십자가가 가득했으면 좋겠다.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며 세상의 명예와 부를 좇는 자가 아닌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빌 1:21)고 고백하는 주님의 사람이 되길 기도한다.

이미연(청년 1부)



복음에만 집중했던 알짜배기 선교

지난 4개월 간의 숨가쁜 여정을 마치고 남다른 감격과 감회에 젖습니다. 저는 타교회와 교인으로서 본인인 선교에 참여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도하는 학생들과 함께 참여하였기에 늘 마음 졸이고 송구한 마음이 앞섰던 시간들이었음을 뒤늦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려와 열려 속에서도 지난 4개월은 너무나도 빨리 지나갔고 이제 그 마침표를 찍는 시점에서 주님과 교회 앞에 감사와 기쁨을 전합니다.

총현교회의 복음에 철저한 선교 시스템과 예수님께 초점을 맞춘 선교훈련에 많은 도전을 받았고, 그 가운데 어느 누구라고 할 것 없이 그 시스템에 맞추어 자신의 열정을 쏟아놓는 일꾼들의 모습에도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교회를 하나로 묶는 선교가 무엇인지 한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는 교회의 상이 무엇인지 선교훈련을 통해 더욱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한 팀이 되어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배려하며, 팀장에게 순종하고, 팀장은 끊임없이 팀원을 보살피는 모습에서 예수님의 섬김의 모습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선교는 선교 자체보다 선교를 준비하는 과정과 기도가 더욱 소중함을 잘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 훈련을 시작하던 날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던 우리 교회의 학생들이 선교를 마치고 나서는 서로를 배려하고 말과 행동을 조심하며 스스로 알아서 자신의 집뿐 아니라 타인의 집까지 행기는 모습을 보여 어린 학생들이 한층 성숙하여졌음을 느낍니다.

이번 단기 선교는 지금까지 경험한 선교와는 달랐습니다. 비록 관광까지는 아니더라도 조금의 여유를 느낄 수 있었던 이천에 경험했던 우리 교회의 단기 선교와는 달리 총현교회 단기 선교팀과 함께 한 선교는 그야말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것 외에는 다른 어떠한 것도 없는 진화 알짜배기 선교였습니다. 아직 복음을 받지 못한 어린 아이들과 끝까지 복음을 안 받아들이겠다는 어른, 그리고 호기심으로 우리의 이야기에 관심을 쏟던 청소년까지 모두 기억 속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그저 예수님께 감사할 뿐이며, 본 교회에서도 오직 십자가의 복음에 충실한 선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김상모(전도사, 총현교회)

*총현 교회의 단기 선교는 모두에게 열려 있다. 본 교회의 단기 선교 방침과 훈련 및 심사에 통과한 타 교회의 교인(소속 교회 당회장 추천을 받은 자)도 선교에 참여할 수 있다.

새가족부를 수료하며

“이제, 지옥 갈 영혼에게 전도하고 싶을 뿐!”



음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교회에 나오는 것이 즐겁다. 우영환

♥ 가족 중 제일 나중이야 믿게 되었다. 새가족부에 다니고 있을 때 아버님이 돌아오셨다. 믿게하시기 전 가족들이 부르는 찬양을 들으며 활짝 웃으셨던 모습을 잊을 수가 없다. 신앙 생활을 통해 감사하게 남겼고 말씀 가운데 자신을 부인하게 되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오소희

♥ 내가 믿게 된 아버님은 전도주사이며, 변함이 없으신 분이시다. 우리 집을 데신 아버지를 믿게 되었습니다. 교회에 다니면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남은 생애 예수님을 믿고 따를 것이다. 박은자

♥ 친구의 전도로 교회에 왔다. 한 달만 찬성해 달라는 부탁이었다. 그러나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나를 따라라”는 자기를 부인하고... 라는 말이 어떤 것인지 깨닫게 되었다. 이제 한 달이 아니라 평생 주님을 섬길 것이다. 평안한 마

♥ 시대의 전도로 나오게 되었다. 그리고 믿음이 생겼다. 보이지 않던 신령님은 늘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러 생각된다. 주일에는 항상 집에서 잠자는 게 대부님이었다는 신앙 생활을 시작하면서 늘 주일을 기다리게 되어 생활에 활력을 준다. 늘 감사한 마음이 생겼다. 죄 사함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께 나는 감사 기도 드린다. 신앙 생활을 통해 기도를 하게 되었다. 힘들 때, 기쁠 때, 잠자기 전에, 밥을 먹기 전에 그리고 어려움이 주님의 보호로 버려 갔을 때 항상 기도하는 생활이 되었다. 정재경

♥ 교육 전에 전도하지 않았다. 이것을 통해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기쁨을 깨달았다. 예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예비하고 인도하시는 나의 아버지인 아버지이다. 사람을 보거나 어떤 대가를 바라서 교회에 나오면 성직만 있을 뿐이다. 우리 모두는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아야 한다. 그 마음이 있으면 나만 천국 갈 수가 없다. 이제 내에게는 지옥 갈 영혼들을 전도할 마음뿐이다. 신앙 생활을 통해 나 자신이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자 내 안에 거하게 되었다. 송은주

♥ 아버지의 친구 분이 교회로 인도해 주셨다. 예수님은 전지 전능하시며 인간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내 중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 죄 사함 받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교회 안에서 많은 좋은 분들을 만날 수 있었다. 이성훈

♥ 안락하고 지혜롭고 충실하신 예수님을 알게 되었다. 교회 생활을 통해 성도님들과의 교감, 그리고 불신하는 마음을 배웠다. 주일이 되면 교회에 간다는 행복한 즐거움이 생겼다. 모든 마음을 부리게 되었고 오로지 내가 예수님과 항상 행하는 생명이 나의 삶을 행복하게 한다. 이 찬

♥ 사촌 형님의 전도로 교회에 오게 되었다. 예수님은 평생을 믿고 따라야 하는 분이시다. 주일마다 해야 할 일이 있고, 내 마음을 정리할 수 있어 좋다. 항상 인간적인 마음을 깨닫고 싶고 노력하기보다는 더욱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기도하겠다. 윤승희

♥ 가족의 권유로 교회에 나왔다. 아버님은 전지 전능하신 분이시다. 신앙 생활을 하면서 하루하루 생활이 감사함을 깨닫게 되었고, 모든 사물이 새롭게 보이게 만들어 주신 예수님의 능력에 감사할 뿐이다. 김경진

(편집국)

말 대신 마음으로

저희 6팀은 팀장님과 선생님 외 8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저희 팀은 약 5개월 전부터 선교기도회, 사도행전 합독 등 여러 가지 훈련을 열심히 받은 뒤,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단기 선교사로 활동했습니다. 버스를 타고 10시간 정도를 이동해 선교지에 도착했습니다. 첫째 날에는 정담을 하면서 조금만 공원을 전도할 정도를 나갔습니다. 그 곳에서 만난 소년은 전도 문장을 읽고 열정 기도를 하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다음 날은 작은 시골 마을을 방문했습니다. 우리들에게 관심 있는 사람은 많은데 말이 잘 통하지 않아 복음 전도가 힘들었습니다. 언어를 철저히 준비하지 못한 점이 아쉬웠습니다. 선교 3일째는 집중해서 선교를 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저희 기도의 부족으로 출발부터 고통상의 문제가 생기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전도 중 주님께서 예비하신 많은 심령을 전하셨습니다. 한 생의 인은 저희가 전하는 말을 귀 기울여 듣고 찬양도 따라 불렀습니다. 많은 통하지 않았지만 마음으로 복음이 전해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공진규(동 2부)

♥ 새 가족을 환영합니다 ♥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2518	김혜복	3	장년2부	
2519	류성민	19	대학부	장혜선(5)
2520	근세	19	외선부	조성욱(10)
2521	다은	19	외선부	이규현(16)
2522	장바	19	외선부	정봉우(7)
2523	바아	19	외선부	김창진(17)
2524	한영민	1	청년2부	김선영(19)
2525	김다미	6	청년2부	김기복(6)
2526	가나	19	외선부	최규태(1)
2527	김경수	19	외선부	김병교(19)
2528	김영하	19	외선부	김신국(1)
2529	원찬희	19	청년1부	
2530	한소현	19	청년1부	리범소(5)
2531	나로구	19	외선부	한 숙(9)
2532	민재	19	외선부	한 숙(9)
2533	한영선	14	청년2부	황순현(8)
2534	홍정민	11	소망부	이수진(11)
2535	김수민	19	청년1부	
2536	박영준	19	고등부	김화선(19)
2537	장성복	8	청년2부	윤영자(8)
2538	박민재	19	청년1부	
2539	윤민비	1	청년1부	윤인숙(10)
2540	이민하	18	청년1부	허순재(18)
2541	최태영	8	청년2부	
2542	신동지	19	중등3부	정진교(9)
2543	신영민	19	중등2부	
2544	바두	19	외선부	백운식(1)
2545	배	19	외선부	이선동(7)
2546	별민우	19	외선부	이영현(2)
2547	안상훈	19	청년1부	심영숙(19)
2548	홍환욱	19	청년1부	이득혜(3)
2549	조진규	19	대학부	김진숙(19)
2550	김동기	19	유년2부	유경진(7)
2551	정우현	19	청년1부	정학림(9)
2552	황영선	19	청년1부	유경혜(11)
2553	김지민	19	청년1부	김정현(7)
2554	이혜균	4	청년1부	이영자(4)

※ 출현교회로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당 255호 새가족 등록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

